



Success Stories: Korean Companies in Switzerland

한국 기업의 스위스 진출 성공 사례



스위스무역투자청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S-GE

스위스는 혁신과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안정적인 정치, 경제 및 금융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높은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스위스무역투자청은 스위스의 공식 무역·투자 진흥 기관으로, 스위스의 산업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위스 법인을 기반으로 다른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6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8	스위스혁신센터
제조	10	HD현대일렉트릭 HD Hyundai Electric Switzerland AG
	12	세신정밀 SPM Swiss GmbH
	14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Switzerland GmbH
ICT	16	이모지게임즈 Emoji Games GmbH
	18	튜링사인 Turingsign Global SA
금융	20	코리안리재보험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생명과학	22	노을 noul GmbH
	2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orea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KPBMA
소비재	26	MCM MCM Global AG
라이프스타일	28	어반플레이 URBANPLAY Europe GmbH

경쟁력 있는 사업 소재지, 스위스를 소개합니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 소재지입니다. 혁신과 기술, 자율적인 경제 체제, 해외 시장으로의 근접성, 뛰어난 사회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대학과 연구 기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 기업 친화적 환경에 매료된 많은 기업이 스위스를 사업 소재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스위스의 양자 경제 관계는 제도적 틀을 통해 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1971년에는 상호 투자 및 보호 협약, 1980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6년에는 스위스가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한국이 체결한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토대로 양국이 경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스위스에 유럽 법인을 설립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4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스위스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생명과학, IoT, 금융,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이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스위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많은 한국 기업이 스위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진출한 기업들은 우수한 인적 자원, 열린 사회, 자유 시장 원칙,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성 덕분에 스위스를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지라고 평가합니다.

주한스위스대사관 스위스무역투자청은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소재지로서 스위스의 장점을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한스위스대사관 스위스무역투자청이 한국 기업의 스위스 진출을 지원합니다.

주한스위스대사관
스위스무역투자청

서울 종로구 송월길 77
02 739 9511

seoul.sbhkorea@eda.admin.ch

스위스무역투자청은 스위스에 대한 투자와 스위스의 수출을 촉진하는 스위스 정부의 공식 기관으로, 전 세계 31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위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스위스 기업의 한국 수출을 지원합니다.

주한스위스대사관 스위스무역투자청은 스위스 내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가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 행정 절차, 법률 정보, 노동 법규, 세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 스위스의 연구소, 기술이전센터, 산업 단지 관련 정보도 제공합니다.

스위스 각 지역의 다양한 사업적 장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의 주 정부 및 지역 경제개발 기관과 연결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주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설명과 사업 유치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스위스 진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더라도 현지 방문 및 네트워킹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스위스 내 사업 및 혁신 환경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도 답변해드립니다.

스위스 내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다면 주한스위스대사관 스위스무역투자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기술 혁신

스위스는 GDP의 3%에 달하는 금액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연구 기관, 기업이 최첨단 연구를 위해 활발히 협력하며, 다양한 지식기술 교환 및 산업 연계를 통해 혁신적 신생 기업과 스피노프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심과 다양성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취리히, 제네바, 바젤에 위치한 3개의 국제공항은 해외의 거의 모든 공항과 직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개의 공식 언어는 해외 연구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스위스에서 수학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 덕분에 유럽의 다양성을 스위스라는 한 나라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소한 법인 설립 절차

스위스에서는 기업과 개인 모두 빠르고 쉽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2~4주면 법률적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스위스 내 신생 기업 설립자 3명 중 1명은 스위스 국적이 아닌 해외 국적자입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세 환경

스위스에서 조세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세 단계로 부과됩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내국세 경쟁은 세율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혁신적 기업에는 특별 세금 공제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세금 감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스위스는 안전하며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나라이고, 스위스의 주요 도시들은 여러 조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힙니다. 거주자의 25%가 외국인이며, 높은 개방성을 바탕으로 기업 주재원과 그 가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위스혁신센터

스위스혁신센터는 산학연 협력, 기술의 상업화와 시장성 향상을 도모하는 플랫폼입니다. 스위스 전역에 6개의 스위스혁신센터가 운영 중이며, 400 개 이상의 기업과 R&D 센터가 스위스혁신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6개의 스위스혁신센터는 각기 다른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위스혁신센터에 입주하면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혁신센터 바젤(PARK BASEL AREA)

바젤은 생명공학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세계적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로, 7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자금 조달, 임상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약·바이오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스위스혁신센터 빌/비엔(PARK BIEL/BIENNE)

첨단 제조, 스마트팩토리, 배터리 분해 및 재활용, 헬스테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3D 시스템, 스캐너 등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시제품의 빠른 생산이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위스혁신센터 이노바레(PARK INNOVAARE)

스위스 최대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기관인 파울 세러 연구소(PSI)에 자리 잡고 있어 입자가속기 등 대규모 연구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학, 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 양자 기술, 구조 생물학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위스혁신센터 OST(PARK OST)

전통적으로 MEM(기계, 전자, 금속) 산업과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웨어러블, 노화 등), 디지털 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스위스 연방재료시험연구소(EMPA), 생갈렌 대학교 등의 연구 기관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혁신센터 웨스트 EPFL(PARK NETWORK WEST EPFL)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EPFL) 등 인근 응용과학 및 공과대학과 협력하여 에너지 저장, 순환 경제, 신경 과학, 인공지능(AI) 로봇, 스포츠 과학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이곳에는 200여개 의 스타트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위스혁신센터 취리히(PARK ZÜRICH)

취리히에 밀집한 AI, 로보틱스, 드론,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를 비롯한 여러 대학과 활발히 협력합니다. 또한 드론과 자율 주행 테스트가 가능한 70만 m²(약 21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HD Hyundai Electric Switzerland AG

취리히주(Zürich)

Hardturmstrasse 135
8005 Zürich
Switzerland

HD현대일렉트릭 스위스 연구소는 2017년에 설립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망 구성에 필수적인 송·배전 전력 기자재를 제작하는 회사로, 각국의 탈탄소 정책에 따라 전력기자재 시장에도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스위스 연구소는 친환경 고압 차단기(GIS) 개발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품 개발 외에도 인재 유치를 통해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대학과 연계하여 산학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 학회(Cigre, IEC, IEEE 등)에도 참여하고 유럽 국가들의 전력청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 등을 진행합니다.

풍부한 우수 연구 인력

“스위스에서 연구 법인을 운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스위스는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인재를 보유한 국가로, 기술적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력 확보가 용이합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스위스 연구소를 통해 유럽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힐 수 있었으며, 한국의 제조 기술과 스위스의 우수한 연구 기술의 협력을 통해 유럽국가들의 전력청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 안정성, 낮은 세율 및 세법의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제조

세신정밀

SPM Swiss GmbH

베른주(Bern)

Aarbergerstrasse 46
2503 Biel/Bienne
Switzerland

세신정밀은 치과용 핸드피스를 전문으로 제조하여 전 세계 12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용 감속 엔진 및 서지컬 핸드피스, 신경 치료용 엔도 엔진 등을 개발합니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시술용 감속 엔진과 수술용 핸드피스를 자체 생산 및 유통하고 많은 국가에 수출합니다.

초고속 BLDC 모터와 초소형 감속기, 고속 고정도 스피들 분야에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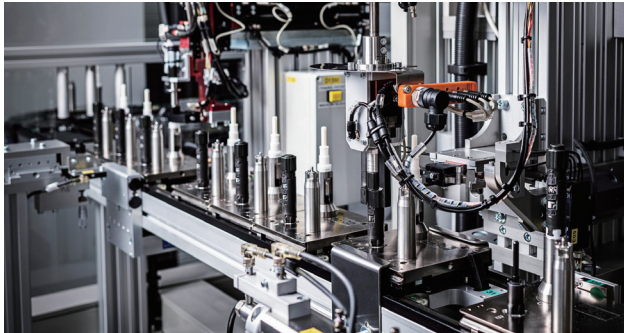
유연한 노동시장과 지리적 이점, 관세 혜택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과 더불어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특히 R&D 투자 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스위스혁신센터와 산학 공동 프로젝트 진행 시 펀딩의 기회가 있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노스위스(Innosuisse) 과제 등 양국의 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펀딩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근무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전문성 있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업 지원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SPM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Switzerland GmbH

취리히주(Zürich)
Giesshübelstrasse 30
8045 Zürich
Switzerland

1969년에 설립한 삼성전자는 AI, 5G, 바이오, 전자부품 등 미래 성장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3년 취리히에 스위스 법인을 설립했으며 로잔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SAMSUNG



이모지게임즈 Emoji Games GmbH

추크주(Zug)

Ruessenstrasse 12
6340 Baar
Switzerland

이모지게임즈는 2013년에 스위스에서 설립된 게임 개발 회사입니다. SaaS 플랫폼인 Studio를 통해, 브랜드들은 코딩 없이 자체 브랜드 미니 게임, 쇼룸, 고객 지원-AI 챗봇, 고객 지원 인력, 그리고 ChatGPT 기반의 공개 채팅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다른 브랜드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브랜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브랜드 메타버스를 창출합니다.

이모지게임즈는 첨단 기술 및 개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스위스 추크주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낮은 규제 장벽, 열린 사회적 분위기와 투명성

“크립토밸리(Crypto Valley)가 구축된 스위스에서 ICT 사업을 하면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 정부의 도움을 받아 ICT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가시적이지 않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줍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열린 사회적 분위기도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스위스 직원들은 근면하고 신뢰성이 높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투명성을 중시하며, 이는 비즈니스 환경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공공 기관의 투명성은 비즈니스 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상식에 따라 사업을 운영한다면, 스위스에서 사업 활동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튜링사인 Turingsign Global SA

제네바주(Genève)

Rue du Général-Dufour 15
1204 Genève
Switzerland

튜링사인은 글로벌 인증 기관으로 2023년 제네바에 설립했습니다. 스위스 인증 기관인 와이즈키(WiSeKey)와 2020년 12월부터 전략적 제휴를 맺고 2년 10개월간 공동 개발한 튜링사인 브랜드의 TSL/SSL 웹사이트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튜링사인이 법인을 설립한 제네바는 인구 20만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UN 등 많은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있어 '세계의 작은 수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중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본부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곳입니다.

스타트업 친화적인 기업 환경

“스위스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 문화에 친화적인 환경을 자랑합니다.

독일어권인 광역 취리히 지역(Greater Zürich Area)을 중심으로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등 우수 대학과 연구 기관이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어권인 제네바와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가 위치한 로잔을 중심으로 혁신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바젤은 세계적 제약 회사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코리안리 재보험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취리히주(Zürich)

Brandschenkestrasse 47
8002 Zürich
Switzerland

코리안리 재보험은 세계 13위 재보험사로 취리히,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 본사를 포함해 11개국에 13개 현지법인과 지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3년 국영기업인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출범한 후
1978년 대한재보험주식회사로 전환하며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코리안리 재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글로벌 재보험의 허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제 체계

“스위스는 새로운 재보험 사업을 설립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리안리 재보험이 취리히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위스의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제 체계, 다국어를 구사하는 고도로 숙련된 재보험 전문가의 가용성, 그리고 취리히가 주요 글로벌 재보험 허브이자 많은 국제 재보험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에 유럽 보험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향후 성장과 확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리안리 재보험 스위스 법인은 2019년에 설립했으며, 현재 22명의 직원이 우수한 의료·교육, 안전한 환경 등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리안리 재보험 스위스 법인은 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으며 현재 90개 이상의 유럽 대륙 보험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REAN Re 코리안리 재보험



노을
noul GmbH

바젤란트주(Basel-Landschaft)

Gewerbestrasse 24
4123 Allschwil
Switzerland

노을은 AI 기반의 혈액 및 암 진단 플랫폼 기업입니다. 노을의 마이랩(miLab™)은 혈액 및 조직 검체의 전처리부터 이미징, AI 분석까지 현미경 검사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하며 15분 이내에 정밀한 검체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진단 플랫폼입니다.

노을은 스위스 법인을 통해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성공적으로 파트너십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신약 개발 임상 연구 협력하고 있으며, 스위스 법인을 통해 라이트 재단(RIGHT Foundation,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및 보건 분야 국제기구와 아프리카 지역 말라리아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의
허브, 글로벌 사업
확장의 관문

“스위스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이루는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파트너와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WHO, FIND, PATH 등 전 세계 보건 정책의 의사결정자인 국제기구들이 포진해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바젤에 전 세계 700여 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현지법인이 있어 이를 파트너십의 기회를 더 쉽고 빠르게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 전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유럽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한국 헬스케어 기업이 목표로 하는 글로벌 시장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을은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내 위치한 유럽 법인이 글로벌 확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orea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KPBMA

바젤란트주(Basel-Landschaft)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내 유수의 제약·바이오 기업, 디지털·인공지능업체 등 270여 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사의 유럽 시장 진출 거점 구축 및 신약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스위스 바젤 투자청과 도메인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스위스 바젤 투자청 KPBM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한양행, 한미약품, 일동제약, 대웅제약, 종근당, 동아ST 등 6개사가 참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스위스 대학·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킹, 스위스혁신센터 내 공유 오피스(Flex Desk) 제공, 현지 진출 관련 자문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독보적 생태계

“스위스는 유럽 내 생명과학 분야에서 독보적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바젤의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연구 자금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스위스혁신센터, 테크 파크 바젤(Tech Park Basel), 바이오젠트룸(BioZentrum) 등을 중심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럽의 제약·바이오 선진국인 스위스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8년 GMP 상호 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AMR)을 체결하여 GMP 실사 면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앞으로도 바젤 투자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유럽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스위스 바젤을 국내 제약사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MCM Global AG

추크주(Zug)

Baarerstrasse 137
6300 Zug
Switzerland

MCM은 1976년 독일 뮌헨에서 시작한 명품 패션 브랜드로, 오랫동안 스위스를 본거지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46개국에 6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60대 명품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CM은 뮌헨 태생 브랜드를 넘어 유럽 전역과 아시아, 북미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MCM은 40개 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통한 합리적인 브랜드 자산 관리

“브랜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핵심 자산으로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는 합리적으로 브랜드 자산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 진출의 교두보로서 스위스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고도로 발전한 기업 환경과 풍부한 글로벌 인재 풀을 갖추고 있으며, 직관적인 기업 지배 구조, 투명한 공공 정책과 세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반플레이

URBANPLAY Europe GmbH

생갈렌주(St.Gallen)

Lerchenfeldstrasse 3
9014 St.Gallen
Switzerland

어반플레이는 자체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와 함께 도시에 다채로운 콘텐츠를 공급하고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IP를 어반플레이의 온·오프라인 도시 생태계와 연결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 개발, 공간 운영 모델 개발 및 구축에 집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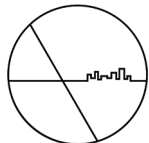
어반플레이의 유럽 법인이 위치한 장크트갈렌주는 문화와 교육, 관광, ICT,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보적 경제 시스템과 해외 시장으로의 접근성

“콘텐츠 기반의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 어반플레이는 스위스 법인 설립으로 진보적 경제 시스템과 더불어 해외 시장으로의 근접성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반플레이는 해외 법인 설립지를 검토할 때 다양한 문화에 동시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물색했는데, 스위스는 독일어권 국가와 프랑스어권, 그리고 이탈리아어권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사업 소재지입니다.

특히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시장입니다. 다양한 관점의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연결되며 파생된 새로운 콘텐츠를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겸한 시장의 특성 덕분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정부와의 유기적 소통과 열려 있는 많은 기회는 해외에서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됩니다.”



URBANPLAY



Language areas

- German
- French
- Italian
- Romansh

- ① HD현대일렉트릭
- ② 세신정밀
- ③ 삼성전자
- ④ 이모지게임즈
- ⑤ 튜링사인
- ⑥ 코리아리제보험
- ⑦ 노을
- ⑧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⑨ MCM
- ⑩ 어반플레이



주한 스위스 대사관 스위스무역투자청

서울 종로구 송월길 77

02 739 9511

seoul.sbhkorea@eda.admin.ch

